다해·제1973호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2018년 12월 9일

춘천주보

DIOCESE OF CHUNCHEON
80th ANNIVERSARY
1939-2019

천주교 춘천교구
설정 80주년

[2019년 사목교서]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사 2,5)

제1독서 바룩 5,1-9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1,4-6.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루카 3,1-6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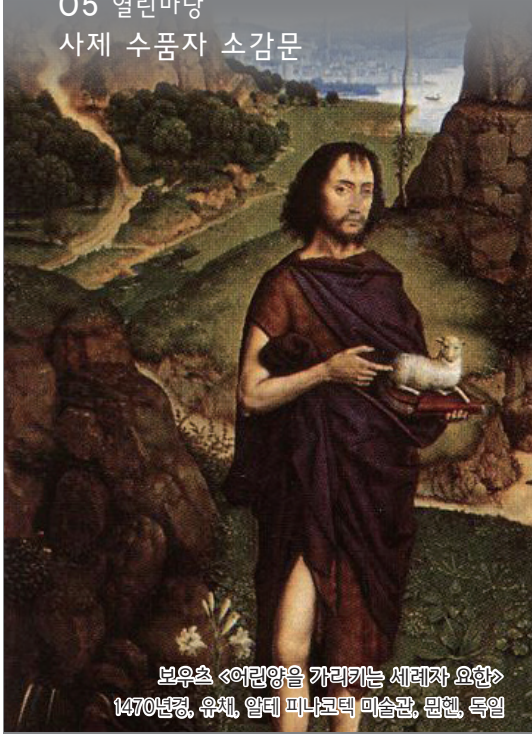
목차

02 특집
'대림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Ⅱ

03 말씀의 향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한삶의 집, 예리코 클리닉

04 담화 요약
2018년 인권 주일

05 열린마당
사제 수품자 소감문



보우츠 <어린양을 가리키는 세례자 요한>
1470년경, 유채, 알테 피나코텍 미술관, 뮌헨, 독일

발행인 김운회 · **편집** 문화홍보국 · **주소** (24338)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 · **전화** 033)240-6012 · **팩스** 033)240-6013 · **이메일** ccjubo@gmail.com

특 집

‘대림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Ⅱ

승천하신 예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면 대림 시기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때다. 다시 오실 예수를 깨어 기다리는 대림 시기 각 주의 의미와 전례에 대해 알아보자.

대림 각 주의 의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는 본질적으로 기쁨과 희망의 시기다. 하지만 이 기쁨은 성탄이나 부활 때와 같이 환호하는 기쁨은 아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며 합당한 준비를 하는 시기다.

대림 시기 동안 이 기다림과 준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대림 시작인 12월 2일부터 대림 제2주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시는 것’과 ‘빛나는 영광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동시에 기다리는 시기다. 대림 제3주일인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예수 성탄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각 본당에서도 이 기간에 구유와 성탄 트리 등을 설치한다.

또한 대림 제1주일은 구세주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하고, 제2주일은 구세주의 오심에 대비하여 회개하도록 촉구한다. 제3주일은 구세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하며, 제4주일은 예수 탄생 예고와 함께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대림 시기 전례

대림 시기에는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는다. 하지만 사순 시기와는 달리 대영광송만 하지 않고 알렐루야는 계속해서 노래한다. 이는 성탄 때 천사의 노래(루카 2,14)가 새롭게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림 시기 미사와 성무일도의 기도문들은 주로 이사야 예언자와 요한 세례자의 설교로 구성돼 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렵고 쓰라린 시기에 백성을 위로하고 메시아와 구원의 도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 세례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세주가 오셨음을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요한 세례자는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며 회개하기를 촉구해 ‘대림 시기의 설교자’로 불린다.

출처/ 가톨릭신문, 최용택 기자

02 특집
‘대림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Ⅱ
03 말씀의 향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한삶의 집, 예리코 클리닉

말씀의 향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한삶의 집, 예리코 클리닉

오세호 클레멘스 신부
사회사목국장

춘천교구 관할구역 내인 경기도 포천군 일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보통 공장에서 일하지만 어떤 이들은 더욱 열악한 근처의 농장에서도 일합니다. 우리교구 사회사목국 내 이주민지원 사목을 맡고 있는 '한삶의 집' 소속 단체인 '예리코 클리닉'은 지난 200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포천군 가산 일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성당의 허름한 교육관, 마치 야전병원을 연상케 하는 의료현장에서 대다수 신자들로 구성된 의사, 약사, 간호사, 통역사, 의료행정가 등이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고통과 더위와 추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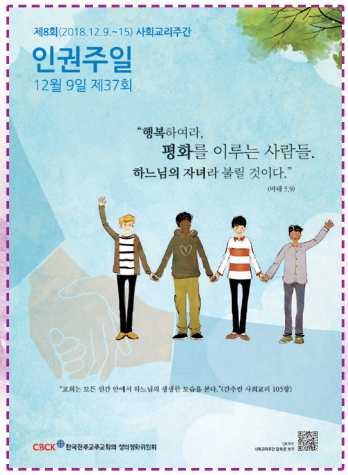
젊은 그들의 몸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병약해져 갑니다. 격심한 노동과 스트레스로 치아가 다 흔들려 빠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40-50세나 되야 망가지는 팔과 다리와 허리의 모든 근육과 뼈들이 고통에 잠기고 맙니다. 외과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이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하시는 말씀에 문득 이샤야 예언서의 '고난받는 주님의 종'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는 자로 여겼다."(이사 53,4)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도 오랜 세월동안 난민이자, 이주노동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헤로데의 칼날을 피해 어린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힘들디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권주일입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병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신음하는 현실이 눈앞인데 달리 무슨 좋은 말로 인권을 논하겠습니까.

춘천교구는 '한삶의 집'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가정들을 위해 영적·물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리코 클리닉'을 통해 고통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가산성당 내의 '이주민노동자센터'와 구 솔모루 성당에 위치한 '선한 다문화센터'도 같은 취지로 열심한 사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목의 성과는 사목자들의 열성과 불가피하게 재정적인 측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교구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돕는다고 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진료소 건축을 위해 교구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각종 의료기기와 다양한 의약품들이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야고 2,13) 이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후원계좌: 신협 131-019-611551 / 신한은행 100-032-914833
▌예 금 주: (재)춘천교구천주교회
▌문　　의: 033-264-3547, 240-6016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2018년 인권 주일 담화 요약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대림 2주일을 인권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권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찰하고 발언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를 막론하고 여러 추문으로 하느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곤혹스러움이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세상을 향해 인권을 이야기하면 자칫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루카 4,23)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가 더 깊고 근원적으로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처 입은 치유자"란 헨리 나웬 신부님의 표현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오랜 사회 교리 전통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범을 따라, 올해 인권 주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권 현실에 관해 신앙의 지성으로 성찰하고 정직하게 발언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의 토대는 타자의 '다름'이 초래하는 불편함을 감당하고 소화하는 능력, 곧 상대의 다름을 가능한 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 「인간 존엄성」이 서두에서 "진리는 (진리 자체의 힘으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1항 참조)고 말한 것은 정녕 인권 감수성의 귀감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동성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선한 의지로 하느님을 찾는 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시거나, 몇 년 전 방한하셨을 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시면서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복음적 인권 감수성의 빛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을 겪는 이들은 대부분 여러 부류의 소수자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차별과 배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이를 당연시하는 다수자와 기득권층의 무신경한 태도로 더욱 증폭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태동기의 교회야말로 실로 몰이해와 차별을 겪던 소수자의 전형이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감당하고 참아 주지 못하는 '다름'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초세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늘 '이방인이요 나그네'(1베드 2,11 참조)로 생각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이 선주민인 우리와 공생(共生)하고 있습니다. '다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올해도 베들레헴의 누추한 여관 짐승 밥통같이 가장 낮은 곳을 골라 강생하시는 구세주께 은총을 청합니다.

2018년 12월 9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 기 현** 콘스탄틴 주교

04 담화 요약
2018년 인권 주일
05 열린마당
사제 수품자 소감문

열린마당

사제 수품자 소감문

김병운 야고보 신부

찬미 예수님,

부족한 저에게 사제직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과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를 온전히 바치겠다는 첫 마음은 금방 잊어버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몇 번의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당신을 따르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시켜주셨습니다. 비록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서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믿기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참된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저만의 노력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서품 성구인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루카 5,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혼자서는 깊은 데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저의 배에 모시어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견진 일정
12. 9(주일) 11시, 동명동성당
12. 16(주일) 11시, 묵호성당
12. 18(화) 19시, 양구성당
12. 19(수) 19시, 홍천성당

교구장 사목방문
12. 9(주일) 9:30, 동명동성당
12. 15(토) 17시, 옥계성당
12. 16(주일) 9:30, 묵호성당

각 지구 예비신학생 모임
영북지구: 12. 9(주일) 14시, 청호동성당
중부지구: 12. 16(주일) 14시, 연봉성당
춘천·남춘천지구: 12. 16(주일) 14시, 스무숲성당
서부지구: 12. 23(주일) 14시, 운천성당

제4차 창세기 연수 봉사자 피정
12. 8(토) ~ 9(주일), 가톨릭회관

사회사목 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
12. 16(주일) 13:30, 주일미사 있음
대상: 사회사목 각 단체 봉사자
장소: 사회사목센터 강당(거두리 소재)
내용: 1부 - 미사 전례 및 장기근속상 수여 / 2부 - 공연(악기연주, 댄스), 봉사활동 영상 상영 / 3부 - 만찬
☎ 033-240-6016 사회사목국

여성·남성 제82차 동계 꾸르실료
여성: 1.10(목) ~ 13(주일), 남성: 1.17(목) ~ 20(주일)
장소: 가톨릭회관, 신청마감: 12. 9(주일) 17시
참가비: 235,000원(신청확정 후 계좌안내)
신청: 각 본당 주임 신부, 울뜨레야 간사
☎ 033-253-8582, 010-8378-9041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2. 14(금)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
주교 수품 24주년 및 영명축일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평화학교 수강생 모집(사회교리교육학교)
기간: 2019년 1월 첫째주 ~ 3월 첫째주
8주간 매주(월) 19 - 21시, 등록금: 1만원
장소: 교구 사회복지회관, 대상: 춘천시내 평신도
수강신청: 각 본당사무실, 신청마감: 12. 21(금)
개별신청: 033-255-3347(평일 9-18시)
* 10명 이하 신청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포콜라레(마리아사업회) 성탄제
12. 9(주일) 12:30, 퇴계성당 2층/ 대상: 누구나

춘천지구 구반장학교 찬양미사
12. 13(목) 14-16시, 강원도청소년수련원
☎ 010-4753-4794, 010-9788-0470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모임
12. 15(토) 13:30, 춘천 말딩회관
12. 16(주일) 13:30, 강릉 주문진성당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정규직원 모집공고
부서: 청소년활동팀 내/ 인원: 2명(28세이하 여직원)
자격: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033-255-6601~2 청소년활동팀

영북지구(설악산)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매월 세번째(수), 19:30 미사 후 회합
장소: 교동성당/☎ 010-5005-5499 총무

춘천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월모임
매월 세번째(목), 18시 회합 후 19시 미사
운교동성당/ 회원모집/☎ 010-2530-8453 회장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모임
12. 15(토) 13:30, 춘천 말딩회관
12. 16(주일) 13:30, 강릉 주문진성당

춘천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상설기도회: 12. 11(화) 19 - 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이상기(서울교구), 미사: 박순호 신부
낮기도회: 12. 17(월) 13 - 17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안수일 요한보스코 신부(소양로본당 주임)

춘천 정의평화위원회 12월 미사
12. 17(월) 19:30, 사회사목센터(거두리 한삶의집)
주례: 이일환 신부/ 주제: 사회교리
주제 강연: 박동호 신부(주교회의정평위위원)

카나 혼인 강좌(중부·서부·춘천·남춘천)
12. 22(토) 19시, 애막골성당/ 커플당 3만원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접수: 사목국(033-240-6050, 일주일 전 마감)

사회복지회 후원회 미사
12. 17(월) 10시, 사회복지회관 경당

렉시오 디비나(성독)
12. 19(수) 10시 접수 - 16시 미사, 교육원

인 준 시 설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가정폭력 초기예방교육 ☎ 033-1366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심
대상: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내맘대로 행복을 키우세요,
◈ 신협 연금저축 공제 ◈
실세금리 반영하는 연복리,
유배당 공제!
세금절감혜택(400만원 한도)과
추가납입을 통한 고액의 연금수령가능!
원하는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지급방식 선택가능!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성소모임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2. 15(토) 14시	서울 개화동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 있는 젊은이
착한목자수녀회	12. 13(목) 19-21시	관상공동체(석사동)	010-3379-4618	'봄봄' 관상수녀님들과 렉시오디비나
천주섭리수녀회	12. 22(토) 13시		010-3090-2602	문의전화 주세요

춘천 항산화 도반욕
항산화도자기 온열찜질방
동부시장입구
춘천농협동부지점 4층
☎ 033-253-8057, 010-9057-3216
성순옥 데레사

대굴령 민들레 동산
국내 최초 특허, 강릉대표음식
민들레 방풍 질경이 돌솥밥 정식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입구
☎ 033-644-8862, 010-2669-9962
조태형 시몬 · 김금옥 글라라

춘천 소양점
아로마 라이프
기능성 건강 보정 속옷
몸이 차거나, 허리(다리) 아프신 분
체형 교정,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
☎ 010-5675-0700
정용순 라파엘라 · 심대영 라파엘

구(口)구(口)집
물회 · 성게비빔밥
전국택배 · 포장 · 당일버스배송
☎ 636-1888 속초시 중앙로 341
박암 미카엘 · 김선희 미카엘라

인 준 시 설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대상: 야간생활지도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내용: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참조
☎ 033-256-2000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모집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음악치료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월 ~ 금 9시 - 12시(시간조정 가능)
☎ 033-262-0152 지역복지팀

고성 까리따스 마태오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3교대 근무
이력서, 자격증 사본 제출
☎ 033-638-6004, mt0032@hanmail.net

가평 꽃동네 희망의집 직원모집
생활재활교사 모집, 3교대 근무/기숙사 있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제출
☎ 031-589-0268, kkothope1@naver.com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바오로딸
접수: 1. 31(목)까지, uus@pauline.or.kr
☎ 02-944-0819~24/0840~2(이러닝)

분도여행사 ☎ 02-852-8525
1. 24(목) 이스라엘 9일 대한항공(359만원)
2. 19(화) 이스라엘·요르단 11일 대한항공(399만원), 공동경비 포함

가톨릭관동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안내
원서접수: 12. 29(월) ~ 1. 3(목)
국가재정지원사업 7관왕 달성, 보건의료특성화대학, 치위생학과 신설, 간호학과 증원
성인학습자모집(산림치유, 중독재활학과 신설)
신입생 전원 생활관 입사가능(영동 일부지역 제외)
☎ 033-649-7000, ipsi.cku.ac.kr

일 반 알 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성모유치원 교사모집
대상: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기간: 12. 31(월)까지
☎ +62 811-1080-543 문의(카톡연결바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63만원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지도: 송진욱 신부
☎ 010-3645-9028 주관: 가고시마교구

성인학습자 및 선취업·후진학자 신입생 모집
수능 없이 입학! 4년제 학위과정!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모집!(일반학생 해당 없음)
대학명: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학과명: 치매전문재활학과, 언어재활상담학과, 산림치유학과, 중독재활학과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033-649-7666~8, human.cku.ac.kr

제7기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제7기 장례지도사 교육(12. 30 마감)
신청: 대전가톨릭대학교 dcatholic.ac.kr
☎ 010-6788-1540 정하상교육회관

라파엘여행사 ☎ 02-778-8565
1. 15(화) 이스라엘 8일(289만원)
1. 14(월), 2. 25(월) 스페인 포르투칼10일(299만원)
2. 27(수), 3. 19(화) 나가사키4일(94만9천원)
3. 17(주일), 4. 7(주일) 다낭 5일(129만원)

서울 삼성산 성지 무료 치유 대피정
12. 14(금) 18시 ~ 16(주일) 15시
장소: 서울 삼성산 피정의 집
☎ 010-3310-8826, 02-874-6346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4. 5(금) 439만원, 인솔자 동행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일정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2019 꽃동네 성소자 동계 피정
1. 11(금) 17시 ~ 1. 13(주일),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참가비: 3만원)
대상: 고등부 - 심신 건강한 미혼남녀
☎ 043-879-0283 전화신청·문의

2019 살레시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2019. 7. 20(토) ~ 8. 13(화) 총7차
홈페이지 참조,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주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접수: 12. 27(목) 10시부터/ 비용: 125,000원
☎ 042-584-0654, http://www.sycenter.net

가톨릭여행사 ☎ 02-319-2533
1. 7(월) 이스라엘·이탈리아 12일(395만원)
2. 11(월)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3일(365만원)
3. 7(목) 이스라엘·요르단 11일(395만원)
4. 1(월) 터키·그리스 12일(365만원)
4. 22(월) 유럽 4개국 12일(355만원)

해넘이피정(왜관수도원에서의 송구영신)
12. 29(토) 16:30 ~ 31(월) 13:30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19만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054-971-0722, 010-9877-4739 문의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모집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2019. 3월 ~ 12월(2월 예비학교)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6.4%)
☎ 02-828-3600/www.donbosco.ac.kr

신·구약성경 통독피정
12. 14(금) 16시 ~ 22(토) 15시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48만원
☎ 010-3340-0201, 010-4993-4394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성게비빔밥
위치/ 고성군 토성면 봉포 해변길99
☎ 633-8887, 010-8791-4220
이순석 베드로·박영희 요셉피나

궁 중 된 장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재래식 된장입니다.
정말 맛있으니 꼭 맛보세요.
☎ 010-6646-7081
박대홍 베드로·전매옥 필로메나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착한가격)
대게, 킹크랩, 붉은대게, 찜 전문점
네이버에 '가재랑 대게랑 바다축제'
위치: 영금정로20(동명동1-83)
☎ 033-635-0059,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 이선희 벨라뎃다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석사점·홍천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인터넷·IPTV가입
☎ 263-6911 석사점, 432-3011 홍천점
정혜영 비아·이창민 루카

춘천 중고차
카플러스 자동차
투명한 판매로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김유정로 1822(퇴계동)
카플러스자동차/ 전 차종 판매·매입
☎ 010-7436-0079, 010-4176-2745
황병렬 비오·김미숙 세실리아